



사랑이

묘연한 시대
나나

리선희 저



연변인민출판사

사랑이 묘연한 시대

리선희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최동일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爱情渺茫的时代: 朝鲜文 / 李善姬著. -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4

ISBN 978-7-5449-0245-8

I. 爱… II. 李… III. 散文-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6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43631号

爱情渺茫的时代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星月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 字数: 18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45-8 (民文)

版次: 2008年4月第1版

2008年4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2.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또 다른 래일을 위하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은 교류의 과정이다. 사람마다 사는 방식과 생각이 다르듯 교류의 방식도 다를것이다. 오래동안 문화동네에 살면서 글로써 내 생각을 표달하고 사람들과 교류하고싶은것이 삶의 방식으로 굳어졌다. 그중 가장 가깝게 가장 쉽게 독자들과 교류할수 있는것이 수필이나 잡문이다.

몇년전 수필집 《작사랑》을 출판하여 독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많은 독자들을 사귀었다. 그 감수는 내 인생에 보람으로 남아 늘 따듯하다.

그간 세월은 소리없이 몇해 흘러갔고 그사이 나는 십여 년이나 정들었던 직장을 옮겼다. 머리카락도 흰오리가 많아 지고...

명실공히 인생의 중년언덕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문집을 내고싶었다.

책속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 주위의 불미한 점들에 대한 질책도 있다. 이 글들은 내가 살면서 느끼는 생각이나 감수이다. 또 다른 래일을 좀더 새롭게 시작해 보려는 마음이기도 하다.

이 책을 출판해준 연변인민출판사와 도와주신 관계인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 3. 1

작 자

차 레



성숙한 녀자의 계절	3
바느질과 녀인의 기도(气道)	8
장백산, 천지와 량심	12
세상은 이런것	16
가을의 들녘에서	23
혼자 부르는 합창이기를	26
대화는 예술이다	31
겨울산행과 겨울나무	34
소주, 맥주 그리고 모태주	43
늘 푸른 세월을	49
이 땅에 피는 진달래는...	55
조금 더 편한 삶이 되었으면...	63
도시의 가이드답게	66
민족문화와 창조문화	69
환경관리에 좀더 중시를 돌렸으면	74
독서절의 탄생에 부치여	76
시급히 정리해야 할 문제	80
우리들의 심신건강 어디까지 왔는가?	93
떠나는 처녀들, 고민하는 총각들	101



국제결혼의 문제점 어디에 있는가?	112
슬픈 현실	119
우리 민족 생활방식 사고해보아야 한다	124
잡지사의 개혁에 관한 단상	127
우려되는 통계수치	137
신과 발(외 2편)	141
박꽃과 미싸일	145
사랑이 묘연한 시대	150
리발소녀인	156
장씨네 가게	165
특별상에 당첨되다	171
비정상사망 A, B, C	177
거울	183
미안한 일은 스톱!	187
“명인효과”와 붙어먹기	192
연길련	197
왕유교수님과 연변의 조선족	223
한국에서 만난 최은택교수님	236
그대 명복을 빕니다	246

성숙한

너자의

계절



- * 성숙한 너자의 계절
- * 바느질과 너인의 기도(气道)
- * 장백산, 천지와 랑심
- * 세상은 이런것
- * 가을의 들녘에서
- * 혼자 부르는 합창이기를
- * 대화는 예술이다
- * 저울산행과 저울나무
- * 소주, 맥주 그리고 모태주
- * 늘 푸른 세월을
- * 이 땅에 피는 진달래는...

성숙한 녀자의 계절

11월이 되면 나는 계절병을 앓는다. 하얗고 노오랗게 통이 앓은 김장배추를 맘껏 요리하고싶어 몸살이 난다. 어찌면 그것은 이 나이를 먹은 녀자들의 통병일수도 있겠다. 좀더 젊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쉽게 사는것이 우선이었으니깐! 그래서 나는 김장철을 성숙한 녀자의 계절이라고 부른다.

지금은 멀어진 옛날이라고나 할가, 식량이 모자라서 절절매던 이십여년전까지만도 김장이 반량식이란 말과 같이 겨울나이의 필수품이었다면 젊은 세대들은 아마 이상하게 생각할는지도 모른다. 시월말경이 되면 배추 캐러 다녔던 기억, 허수레한 로동복을 입고 로동장갑을 끼고 반달낫을 들고 벌판같이 아득한 옥색의 배추밭에 가서 하나, 둘 이랑으로 세여 사서 배추를 캐던 일은 이제 다시 도시의 식객들에게는 차례지지 않을 때 지난 우리 세대까지의 추억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짐짐의 세대주들에게만 우선적으로 차례지는 신성한 의무이기도 했다.

캐여낸 배추를 자동차에 짝 박아 쌓아 싣고 그 시절에

는 좁아서 통과할수 있을가를 고민하면서 조심조심 골목골목을 누비던 김장철의 배추운반 그리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지저분하던 배추걸잎사귀들, 그것은 과동준비로 동분서주하던 그 년대 우리들의 살아가는 풍경이었다.

무슨 배추를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 지금의 젊은이들에게는 불가사의할지도 모른다. 집집마다 마당에 작은 산더미처럼 무쳐놓고 무슨 보배단지마냥 마당이 허술한 집들에서는 밤에도 들락날락 살피가면서 지키기까지 하였다. 민망스러운 말이겠지만 몇포기씩 잃어지는 폐단도 없지 않던 세월이었으니깐.

내가 어릴적 우리 집도 대식솔이었으니 해마다 김장철이면 배추 천근은 넘어 사는것 같았다. 그외에도 감자, 무우, 파, 마늘... 하여튼 겨울나이 먹거리준비는 그야말로 거대한 하나의 공정이었다.

우선 아침이면 아버지는 우리를 깨워 데리고 지난밤 쌓아놓았던 배추더미를 헤쳐 한포기씩 정히 날라 마당 한구석에 가지런히 널어 별쪼임을 시켰다. 한 사나흘 그렇게 아침이면 널어놓고 저녁이면 쌓아놓으면서 해별과 바람에 곱게 시들게 한다. 그것은 씻을 때 배추잎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란다.

배추가 곱게 시들면 어느날 새벽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나까지 동원되어 떨어진 걸잎과 거치장스런 잎사귀들을 가려 겨우내 먹을 시래기감으로 따로 보관하고 김장감 배추들은 알뜰히 다듬어 어른이 두셋이 들어갈만큼한 커다란 항아리 두개에 차곡차곡 집어넣는다. 그리고나서 알맞게 간

을 한 소금물을 배추가 잠기도록 가득 부어넣고 커다란 돌을 꼭 눌러 초절임을 마친다. 그렇게 웅근 하루를 소금물에 잠재우고나서야 배추를 씻는데 적당하게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는 무척 다루기 만만하고 쉽게 씻어진다.

깨끗이 씻어낸 배추를 우선 김치독에 착착 포개여넣고 그늘에 한 이삼일 두었다가 다시 꺼내 준비했던 고추양념을 버무려 김치움에 넣는다. 지금처럼 고무장갑이 없는 때여서 손이 매운 어머니는 손에 콩기름을 발랐었다. 나도 발라보았는데 맵기는 마찬가지인것 같았다.

잘 절은 배추를 한잎씩 들쳐가며 한데 짙어 맛있게 간을 하여 버무린 생강, 마늘, 고추양념을 골고루 빨갛게 발라내는데 그렇게 양념을 바르다가 노오란 배추속잎 하나씩 따서 맛을 보면 속까지 찌렁해나는 그 재미는 다른 철에는 있을수 없는 락취요, 흥겨움이였다.

가을이 도래하면 김치움을 판다, 고추를 말려 쪼는다, 배추를 캐여 실어들인다, 김장을 한다... 분주하기도 하던 필수의 겨울나이 먹거리준비가 인제는 우리 세대들에게까지도 멀리 소외되고있다. 먹을것이 흔한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쿡크리트에 도배된 도시의 풍경에 김치움을 판다는것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 되였고 겨우 배란다에 댕그러니 김치독을 내놓고 김치를 담는데야 인차 시여버리는데다가 식구 많아야 네댓을 초과하지 않는 세월이 된 지금 극상 일여덟포기 이상 담글수가 없다. 대여섯포기나 일여덟포기를 담그는 김장은 도무지 신날데가 없거니와 김장이라 이름하기조차 무색하여 아무런 재미가 없다.

그래도 이 계절이 도래하면 신들린 사람처럼 김장을 하고 싶어지는것은 분명히 계절병이다. 잘 절여진 노오란 배추포기에 빨간 양념을 물들이고 싶어지는 극성스런 마음을 달래고 싶어 서너포기 사안고 기어이 일을 벌인다.

나이를 먹었음인가, 속잎, 겉잎 층층 싸여 통이 얇은 배추통을 다루노라면 옛날 우리 선조 녀인들이 한겹 두겹 몇겹으로 껴입었다는 첫날옷이 생각나는것은? 다리속곳, 속속곳, 단속곳, 고쟁이, 너른 속곳, 열두폭대습치마, 무지기, 그우에 걸치마 그리고 또 활옷. 녀자의 속마음을 들어내지 말고 뽕뽕 숨기고 살라고 그렇게 겹겹이 껴입혔을가? 배추포기가 우리 선조님들의 옷차림을 닮았는지 선조님들의 옷차림이 배추포기를 닮았는지...

그 사박사박한 겹겹의 하얀 배추살에 소금을 쳐가며 아프도록 살퐁이 곱게 절이느라 하면 기나긴 세월두고 우로는 시부모님 모시라, 남편 수발하라, 아래로는 시누이, 시동생 시중하라, 아들딸 낳아서 키우라 돌고도는 춘하추동 더울세라 추울세라 식구들 등 따지게 하고 배불리느라 고스란히 절어져 가버린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시집살이, 인생살이가 가슴에 아련히 맞혀오는것은 또 웬 일일가?

인생살이 아픈 상처인들 얼마였으랴, 매운 양념 한줌 넣어 김장을 잠재우듯 남편 위한 정성과 자식 위한 기도로 쓰리고 아련 인생 묵새기면서 머리우에 김치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이고 사신 우리의 어머니들,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가족 위한 걱정과 정성에 절여진 인생을 어느 자식인들 다 헤아릴수 있으랴... 철없이도 인제서야 깨닫게

된다. 자식은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절이는 소금인것을...
아, 나는 자식이 되어 내 엄마의 아픈 가슴에 얼마나 소금을
들뺏겼을가!

너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자라는 말의 의미를 깨우
칠수 있을 때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흐르고 얼마만큼 속이
쓰린 아픔을 잠재워야 할가! 김장철이 돌아오면 김장을 하
고싶어 계절병을 앓는 마음, 그것은 못내 질서와 규칙을 박
차고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 멀리 날아가고싶은 내 마음
을 김장배추 절이듯이 곱살긋게 절여야만 하는 너자의 성
숙을 위한 아픔이 아닐지 모르겠다.

《도라지》 2003년 1호

바느질과 녀인의 기도(气道)

오랜만에 반진고리를 찾을 일이 생겼다. 녀석이 운동하러 나가겠는데 운동복혼술기가 따졌다는것이다. 핑계낼수 없는 내 차지의 일거리인지라 순순히 반진고리를 찾아들었다.

바늘귀에 실을 꿰여 한뼘한뼘 꿰매려니 참말 오랜만에 잊고 지내던 녀심의 한자락을 되찾은듯하여 마음 한구석에 싱그러운 젊은 꿈이 스멀스멀 머리를 쳐드는것 같았다.

첫애를 낳고 바느질이 몹시 배우고싶어졌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은 아름다운 녀심의 본능인것 같다. 하지만 교원노릇은 예나제나 틈을 낼수 없는 직업인데다가 하던 공부도 마무리져야 했고 아기도 손을 잡고있다보니 시간을 내어 스승을 찾아 꿈을 이를 넘두는 내지도 못했다. 그래도 그 꿈을 꺾기는 너무도 아쉬워서 나는 스스로 부딪쳐보려고 덤벼거렸다.

아롱다롱 예쁜 색실과 내 아기에게 어울릴듯한 옷감이 보이면 냉큼 사들고 들어와서 어림짐작으로 본을 뜬다. 디자인도 엄연한 학문이런만 초보인생실습자가 아니라 할가봐 나는 담도 크게 치수도 비레도 상관없이 느낌이 가는대로

썩썩 가위질을 하고 바느질로 시침을 떠서 비슷하다 생각 되면 자르르 미싱을 돌렸다. 그렇게 탄생된 앞치마랑 적삼 이랑 바지랑 넥타이... 어찌됐든 큰애는 초보엄마의 억지숨 씨덕을 많이 보았다.

어려워 자신없는것은 물론 감히 손을 못댄다. 하지만 옷집의 디자이너에게 내 아이디어를 상세히 부탁하면 순간의 감각을 멋진 현실로 이루는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80년생인 큰 녀석은 의상디자이너가 되고싶었던 엄마의 충동덕분에 그 시절에는 아직 유행이 되지 않은 넥타이도 매보았고 스프링코트자락도 멋지게 날렸었다. 하여간 명절같은 때 데리고 사람들이 모인데 나가면 사진기가 줄줄 따라다녔으니 말이다.

그렇게 현란스럽던 내 꿈이 언제 사그라졌는지는 스스로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아마도 뒤미처 흥성해진 시장 덕분에 어느 틈엔가 자취를 감춰버렸으리라. 그와 함께 내 녀심의 차분함을 길들이던 마음의 뒀안길도 시끌벅적한 현대감각에 물들어 알쏭달쏭 혼란스러워져버렸으니!

바느질을 손에 잡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온 정신이 일감에 쏠리며 마음의 잡념이 가시여진다. 바느질이 가는대로 바느질감의 임자한테 마음이 기울면서 식구들의 안부만을 걱정하게 된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느질해야만 바느질도 곱게 된다고 믿기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느질을 잡는다.

그러고보면 녀자는 바느질로 자신과 가족들의 마음을 하나로 꼭꼭 이어놓는것이 아닐까!

어렸을 때 전등불아래서 식구들의 양말이며 내의들을

꽤매던 할머니와 어머니의 모습은 가끔 아름다운 화폭이 되어 나를 동경케 한다. 그때는 미처 몰랐었지만 그것은 가족을 위한 어머니된 이들의 참된 마음의 수련이며 한없는 인내였던것을...

이런저런 걱정애 마음이 심란하면 바느질로 심기(心氣)를 눌렀다는것이 아마 우리 어머니들의 공통된 마음의 기도(氣道)였을것이다.

겨울의 기나긴 밤 호롱불아래서 세월에 닳은 윤두를 뜨 거운 화로불에 고이 묻고 지아비의 등걸이나 아들의 저고리를 지을 때 마음가짐이 기울면 저고리동정이 기울어질가, 품은 생각이 어수선하면 등걸이 지음새가 어수선해질가... 행여 바늘이 잘 드나들지 않으면 손가락의 아픔보다 지아비나 자식의 전정이 순탄치 아니할가 넘려하여 수시로 머리카락에 바늘을 문질러 윤이 돌고 반지럽게 하는데 정성을 다 쏟느라면 세월따라 갈앉은 앙금처럼 차분해지는 모심이요, 녀심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 갓 시집온 새색시에게 시어머니가 까탈스런 바느질감을 풀먹여 새로 짓게 하던 옛 시집살이의 서막은 온갖 잡념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다잡아가며 촘촘 바느질하듯 집안 대소사를 틈바구니없이 아래우를 촘촘 보살펴갈수 있도록 인내심과 자상함을 길들이는 필수과였던것 같다!

또한 배부른 임신부가 아기의 첫 저고리를 한뼘한뼘 손수 지었음은 침착하고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성실한 마음가짐을 아기에게 태교로 느끼게 한 어미된이의 첫 가르침이 아니였을가? 바느질은 우리에게 성실을 가르

친다. 바르지 못하거나 대강 지나치면 곧이곧대로 그 모양을 드러내는 법이니...

옛 녀인들이라고 들뜬 꿈이 없고 허황된 욕망이 없으라는 법이 어디 있으랴? 침선을 배워 욕망을 갈았히고 헛된 꿈을 잠재운 그녀들의 지혜와 인내야말로 마음의 기도(气道)요, 수련이라 할만하다.

옷깃이 파졌거나 단추가 떨어진 옷을 입고 다니는 나그네나 아이들을 보면 그 마누라나 어미된이의 게으름과 지저분함이 영상처럼 떠오른다.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다.

그러니 아무리 기성옷이 무더기로 쌓여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녀인들이라 할지라도 가끔은 바느실을 잡아보는것이 바람직할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식을 위해 바느실을 잡으면 서로의 사랑과 마음이 더욱 끈끈하게 하나로 뭉쳐이 될것 같다.

오랜만에 바느실을 잡고나니 녀자의 인생철학 하나를 새삼스레 깨우친것 같다.

어울리는 한복차림으로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바느질감을 손에 잡는 푸근한 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바느질을 잊고 사는 녀자와 바느질을 잊지 않고 사는 녀자의 차이점을 깊이 음미해보게 된다.

《연변문학》 2003년 9호